

그로뎀 제안하신 <grruby>

nanim

2025년 5월 1일 v0.8.5

요약

이 패키지의 제작에 얹힌 사연事緣은 http://www.ktug.org/xe/index.php?document_srl=204424&mid=KTUG_open_board을 볼 것.

차례

1	간단 설명	2
1.1	패키지	2
2	명령과 환경	3
2.1	기본 명령: \grfoo	3
2.2	스타일링 명령	4
2.3	문단의 처리: 이전 방식	4
2.4	문단의 처리: 새로운 방식	5
2.5	한글과 한자의 자리 바꿈	7
2.6	사용자 정의 스타일	7
2.7	pdfL ^A T _E X 옵션	8
3	예문例文	8
4	수정사항	10

1 간단 설명

1.1 패키지

```
\usepackage[rubystyle=<default|XXruby|ruby|progress|rup|lw|rw|user>,  
            rubycolor=<color>,  
            expos=<true|false>]{grruby}
```

gr은 이 패키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그로몹 님의 닉네임 첫 두 글자이다. 그로몹께서 제안하신 환경의 이름이 myruby였기 때문에 이를 본따서 <grruby>라고 하였다. 이 패키지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 한글(漢字)와 같이 입력된 소스로부터 한글漢字와 같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원래 이것은 \ruby{한글}{漢字}와 같이 단어마다 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마저 귀찮으니 자동으로 한자에 한글 음을 달아주게 하자는 발상의 구현. 요컨대 게으름의 소산일.....는지도.

루비 스타일 한글/한자가 구현되는 모양을 이 패키지에서는 <rubystyle>이라고 부르는데 기본값은 그로몹께서 제안하신 바 한글이 한자의 왼쪽 위에 작은 글자로 (흐릿하게) 오게 하는 것이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루비 스타일이 준비되어 있다. 아래는 \grfoo 한글(漢字)라고 하였을 때의 결과들이다. 괄호 안에 오는 문자와 괄호 밖의 문자를 서로 바꿀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2.5를 보아라.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루비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2.6에서 설명하였다.

default 한글漢字. 이것이 디폴트이다. gromob으로 지정하여도 효과가 같다.

XXruby ^{한글}漢字.

ruby ^{한글}漢字.

progress 한글漢字.

rup 漢字^{한글}.

lw 한글. 괄호 안에 들어오는 문자를 찍지 않는다. [v0.4]

rw 漢字. 괄호 안에 들어온 문자만을 식자한다. [v0.4]

이 패키지는 ksruby¹⁾ 패키지를 지원한다. ksruby와 함께 쓰면 ruby 또는 XXruby 스타일에서도 색상 처리가 가능하다. \usrpackage{ksruby}가 필요하다.

ksruby가 없다면 Xe_{La}TeX 엔진에서는 XXruby와 ruby를 위해 \usepackage{ruby}가 필요하다. 이 패키지를 자동으로 로드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preamble에 써주어야 한다.

1) KTUG 사설저장소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

```
\ifXeTeX
\usepackage{ruby}
\renewcommand\rubysep{-1ex}
\renewcommand\rubysize{0.6}
\fi
```

XXruby는 ruby와 달리 한 글자씩 루비가 붙는다. 다만 ksruby를 쓰지 않은 Lua_{TeX}-ko라면 ruby 패키지를 로드할 필요도 없고 XXruby와 ruby의 결과가 같다. 즉 Lua_{TeX}에서는 XXruby를 쓸 필요가 없다.

루비 칼러 이 옵션은 default(gromob), progress, rup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하여 동작한다. ksruby를 로드하였다면 ruby, XXruby에도 루비 칼러가 적용된다. 이 패키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XXruby와 ruby에는 효과가 없다. 이름 그대로 보조 문자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default 스타일에는 gray, progress와 rup에는 black이 기본값이다.²⁾

2 명령과 환경

2.1 기본 명령: \grfoo

\grfoo 명령: 이 명령의 뒤에 오는 한 개의 단어를 정해진 서식으로 식자한다. 이 패키지의 기본 명령이며 다른 모든 환경은 이 명령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괄호 바로 뒤에 중괄호로 잇대어 붙인 부분은 주석이 된다. 주석은 현재 각주(\footnote)로 식자되게 되어 있다.

\grfoo 한글(漢字) \grfoo 한글(漢字){주석}

한글漢字 한글漢字^{a)}

a) 주석

“한글(漢字)” 입력 형식에서 괄호 안에 오는 텍스트가 스페이스로 분리되면 안 된다. 두 단어 이상을 한글/한자 방식으로 입력할 때 “한자(漢字)입력(入力)”과 같이 입력하는 것은 좋지만 “한자입력(漢字入力)”은 잘못이다. 한글 부분과 한자 부분에 스페이스가 꼭 필요할 때는 그룹으로 묶어준다. \grfoo{한자입력}({漢字入力}) 한자 입력漢字 入力.³⁾

2) 단, 문서 초기값이 default였고 나중에 스타일을 바꾼 경우라면 바뀐 스타일의 초기값이 default의 것(gray)을 따라간다. 이 문서에서 그러하다.

3) 루비 스타일이 XXruby일 경우, 이렇게 묶어주는 것은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XXruby 스타일에서는 글자마다 한글 음을 붙이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XXruby 스타일에서라면 단어 단위로 한자를 괄호 안에 써넣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는 공백을 명시적으로 틸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grfoo` 漢字~입력 (漢字~入力)
한자 입력漢字 入力.

2.2 스타일링 명령

루비 스타일: `\grrubystyle` 루비 스타일 바꾸기. 루비 스타일은 패키지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의 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default`, `XXruby`, `ruby`, `progress`, `rup`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인자로 지정하면 된다. 보기) `\grrubystyle{progress}`.

`\grfoo` 양식(樣式)이나 `\grrubystyle{progress}` `\grfoo` 색상(色相)을 바꾼다.

양식樣式이나 색상色相을 바꾼다.

루비 컬러: `\grrubycolor` 루비 컬러 바꾸기. 루비 컬러는 패키지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의 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 단 `XXruby`와 `ruby`에는 색상을 적용할 수 없다.

`\grrubystyle{rup}`

`\grfoo` 양식(樣式)이나 `\grrubycolor{blue!80}` `\grfoo` 색상(色相)을 바꾼다.

樣式양식이나 色相색상을 바꾼다.

2.3 문단의 처리: 이전 방식

단어마다 `\grfoo`를 마크업하는 것의 피곤함을 줄이기 위해 한 문단 안에 “한글(漢字)” 형식으로 입력된 단어를 찾아서 `grruby` 처리를 해주는 환경이다. `version 0.7`까지 `<grruby>`와 `<grrubypars>`라는 두 개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전자는 하나의 문단만을 처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여러 문단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 예시에서 루비 스타일은 `rup`이다.)

`<grruby>` 환경 한 문단 내에 있는 한글(漢字) 입력을 정해진 서식으로 식자한다.

`\begin{grruby}`

한 문단(文段) 내(內)에 있는 한글(漢字) 입력(入力)을
정해진 서식(書式)으로 식자(植字)한다.

`\end{grruby}`

한 文段문단 內내에 있는 漢字한글 入力입력을 정해진 書式서식으로 植字식자한다.

반드시 하나의 문단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단의 일부에 이 환경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문단은 올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문단 구분(\par)”이 이 환경 내부에 오면 안 된다.

〈grrubypars〉 환경 여러 문단에 걸친 텍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환경은 〈grruby〉에 비하여 약간의 제약이 있다. 주의하여 사용하라. (그리고, 〈grruby〉와 〈grrubypars〉 환경은 문단 처리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컴파일 속도가 문제라면 \grfoo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begin{grrubypars}
```

여러 문단(文段)에 걸친 텍스트를 같은 방식(方式)으로 처리(處理)한다.

둘 이상(以上)의 문단(文段)을 포함(包含)하는 것도 문제(問題)없다.

```
\end{grrubypars}
```

여러 文段문단에 걸친 텍스트를 같은 方式방식으로 處理처리한다.

둘 以上이상의 文段문단을 包含포함하는 것도 問題문제없다.

別行數式별행수식, 圖表도표, 그림, verbatim 따위를 〈grruby〉 환경 안에 넣을 생각을 하지 말자. section-類류 명령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section을 〈grruby〉 안에 넣지 말고 \section 안에서 단어별로 \grfoo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卽즉, 이 環境환경은 平文段평문단에서 쓰려고 만든 것이다. 이 환경들은 오직 평문단에서만 위의 명령과 환경이 오류없이 동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2.4 문단의 처리: 새로운 방식

[version 0.8] 최근 버전에서 같은 목적의 〈grrubypara〉와 〈grrubyparas〉 환경을 더 제공한다. 문단 안에 다른 매크로 등이 오는 경우에 좀더 잘 처리되도록 한 환경이다. 실행 속도도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제에서 매크로가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⁴⁾

```
\begin{grrubypara}
```

```
\grrubystyle{progress}\grrubycolor{red}
```

```
\uline{오등}(吾等)은 \textbf{자}(茲)에 아~조선(我\uuline{朝鮮})의
```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
선언(宣言)하노라.\footnote{각주붙임}
```

4) 이 환경 안에 수식은 올 수 없다.

```
\end{grrubypara}
```

오등_{吾等}은 자_茲에 아 조선_{我朝鮮}의 독립국_{獨立國}임과 조선인_{朝鮮人}의 자주민_{自主民}임을 선언_{宣言}하노라.^{a)}

a) 각주붙임

가끔 `\grfoo`를 부르기 전에 한두 문자를 별도로 식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따옴표와 같은 것이다. 이럴 때는 미리 식자할 문자를 대괄호[] 안에 넣어두는 트릭을 쓸 수 있다. 이것은 `\grfoo` 명령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grrubypara>`와 `<grrubyparas>`에서만 동작한다. `\grfoo`는 단어 사이에서만 붙일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이 커맨드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다음 예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예시에서 이 방식을 쓰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를 두번째 줄에서 보았다.

```
\begin{grrubypara}\grrubystyle{default}
```

[``]문자(文字)의 기원(紀元)''에 대하여.

``문자(文字)의 기원(紀元)''에 대하여.\\

경주(慶州) [`\unskip\cntrdot\,`]부산(釜山) [`\unskip\cntrdot\,`]포항(浦項)

```
\end{grrubypara}
```

“문자_{文字}의 기원_{紀元}”에 대하여. “문자_{文字}의 기원_{紀元}”에 대하여.

경주_{慶州} · 부산_{釜山} · 포항_{浦項}

`<grrubyparas>` 환경은 여러 문단에 대하여 같은 처리를 한다.

문단 일괄 처리 환경에서 주의할 사항

이 패키지의 `\grfoo`는 괄호([U+0028], [U+0029])를 특수하게 처리한다. 따라서 한자 병기를 위해서가 아닌 목적으로 적은 괄호가 “문단 처리를 위한 환경” 안에 들어갈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괄호로 둘러싸는 사용자 명령을 쓰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KS 기호문자의 괄호([U+FF08], [U+FF09])를 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라.

```
\def\myparen#1{(#1)}
```

```
\begin{grrubypara}\grrubystyle{rup}
```

괄호(括弧)`\myparen{[U+0028], [U+0029]}`를 특수(特殊)하게 처리한다.

따라서 한자병기(漢字併記)를 위해서가 아닌 목적(目的)으로 적은 괄호(括弧)가 문단~처리(文段~處理)를 위한 환경(環境) 안에 들어갈 때는 주의(注意)해야

할 것이다\myparen{손쉬운 방법은 괄호로 둘러싸는 사용자 명령을 쓰는 것이다}.

\end{grrubypara}

括弧괄호([U+0028], [U+0029])를 特殊특수하게 처리한다. 따라서 漢字併記한자 병기를 위해서가 아닌 目的목적으로 적은 括弧괄호가 文段處理문단 처리를 위한 環境환경 안에 들어갈 때는 注意주의해야 할 것이다(손쉬운 방법은 괄호로 둘러싸는 사용자 명령을 쓰는 것이다).

2.5 한글과 한자의 자리 바꿈

[v0.3] 가끔 입력 문자열의 한글과 한자 위치가 바뀌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오등(吾等)이라고 입력되는 수도 있지만 吾等(오등)으로 입력해둔 텍스트를 써야할 때도 있는 것이다. (아래는 progress 스타일로 예시한다.)

expos를 패키지 옵션으로 제공하면 괄호를 전후한 한글과 한자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식자한다. 이 옵션을 주지 않을 때 또는 expos=false일 때가 디폴트이고 위치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이 expos=true이다.

문서 중에서 이 위치를 일시적으로 바꾸려면 \grexpos 명령을 사용하면 위치가 toggle 된다.

<pre>\grfoo 오등(吾等)</pre>	
<pre>\grexpos \grfoo 오등(吾等)</pre>	오등吾等 吾等오등 오등吾等
<pre>\grexpos \grfoo 오등(吾等)</pre>	

또는 \grexpos 명령에 옵션 인자를 주어서 true/false를 강제할 수 있다.

<pre>\grexpos[true]</pre>	
<pre>\grfoo 독립국(獨立國)</pre>	獨立國독립국 독립국獨立國
<pre>\grexpos[false]</pre>	
<pre>\grfoo 독립국(獨立國)</pre>	

2.6 사용자 정의 스타일

[v0.4] <rubystyle>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rubystyle을 user로 설정하고 \grrubyUserDefined라는 명령을 재정의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두 개의 인자를 받아들인다. 다음 예를 보라.

```

\grrubystyle{user}
\renewcommand\grrubyUserDefined[2]{%
  \textcolor{blue}{\sffamily #1}%
  {\footnotesize\color{red}%
    \fbox{#2}%
  }}
\grfoo 한글(漢字)

```

한글 漢字

사용자가 `\grrubyUserDefined`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입력한 대로 출력된다. 그리고 이 스타일에서는 각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7 pdf \LaTeX 옵션

[v0.6] 패키지 옵션 [pdf \LaTeX]은 pdf \LaTeX 과 함께 컴파일할 때 쓸 수 있다. 이 패키지는 원칙적으로 X \LaTeX , Lua \LaTeX 에서 ko \LaTeX 과 함께 동작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예문(例文)

예문과 그 입력 소스를 보인다.

부夫 천지자天地者는 만물지역려萬物之逆旅⁵⁾요 광음자光陰者는 백대지과객百代之過客⁶⁾이라. 이而 부생浮生이 약몽若夢하니 위환爲歡이 기하幾何⁷⁾오? 고인古人이 병촉야유秉燭夜遊함이 양유이야良有以也⁸⁾라.

황 양 춘 소 아 이 연 경 況 陽春召我以煙景⁹⁾이요 대 괴 가 아 이 문 장 大塊假我以文章¹⁰⁾이라, 회 도 리 지 방 원 會 桃李之芳園하여 서 천 료 지 序 天倫之樂事로라.

군 계 준 수 개 위 혜 련 群季俊秀하여 皆爲惠連¹¹⁾이어늘 오 인 영 가 독 참 강 락 吾人詠歌는 獨慙康樂¹²⁾이라.

5) 여관, 객사, 모텔. 여기서 逆은 迎의 뜻이다.

6) 일춘광음이라도 불가경이니라.

7) 몇 어찌. 어차피 인생 허무한데 안 즐기고 어찌리요?

8) 옛사람도 놀았는데 우리라고 못 놀소냐.

9) 연경은 아지랑이 낀 경치,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

10) ‘대괴’는 대우주, 대자연. ‘가’는 借. 빌려준다.

11) 모두가 혜련이 될 만하다.

12)慙을 慙으로 쓴 곳도 있다.

유상미이幽賞未已에 고담전청高談轉淸하니 개경연이좌화開瓊筵以坐花¹³⁾하여 비우상이
취월飛羽觴而醉月¹⁴⁾이로다.

不有佳作¹⁵⁾불유가작에 何伸雅懷하신아회리오! 如詩不成여시불성¹⁵⁾이면 罰依金谷酒數¹⁶⁾
의금곡주수¹⁶⁾하리라.

예문의 소스

```
\begin{grrubypara}
```

부(夫) 천지자(天地者)는 만물지역려(萬物之逆旅)%

{여관, 객사, 모텔. 여기서逆은 迎의 뜻이다.}요

광음자(光陰者)는 백대지과객(百代之過客){일춘광음이라도 불가경이니라.}이라.

이(而) 부생(浮生)이 악몽(若夢)하니 위환(爲歡)이

기하(幾何){몇 어찌. 어차피 인생 허무한데 안 즐기고 어찌리요?}오?

고인(古人)이 병촉야유(秉燭夜遊)함이

양유이야(良有以也){옛사람도 놀았는데 우리라고 못 놀소냐.}라.

```
\end{grrubypara}
```

```
\grrubystyle{XXruby}
```

```
\begin{grrubyparas}
```

황(況) 양춘소아이연경(陽春召我以煙景)%

{연경은 아지랑이 낀 경치,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이요

대괴가아이문장(大塊假我以文章)%

{‘대괴’는 대우주, 대자연. ‘가’는 借. 빌려준다.}이라,

회(會) 도리지방원(桃李之芳園)하여 서(序) 천륜지락사(天倫之樂事)로라.

군계준수(群季俊秀)하여 개위혜련(皆爲惠連){모두가 혜련이 될 만하다.}이어늘

오인영가(吾人詠歌)는 독참강락(獨慙康樂){慙을 慚으로 쓴 곳도 있다.}이라.

```
\grrubystyle{gromob}
```

유상미이(幽賞未已)에 고담전청(高談轉淸)하니

개경연이좌화(開瓊筵以坐花){경연은 깔고앉을 자리.}하여

비우상이취월(飛羽觴而醉月)%

{우상은 깃털 모양의 술잔. 그냥 ‘술잔’을 우미하게 표현한 것이다.

13) 경연은 깔고앉을 자리.

14) 우상은 깃털 모양의 술잔. 그냥 ‘술잔’을 우미하게 표현한 것이다. 앞 구절의 좌화가 ‘꽃 아래 앉다坐於花下’인 것과 동일하게 취월은 ‘달 아래 취하다醉於月下’이다.

15) 如는 若. 만약.

16) 금곡주수는 별주 석 잔을 말한다.

앞 구절의 좌화가 `꽃 아래 앉다(坐於花下)'인 것과 동일하게
취월은 `달 아래 취하다(醉於月下)'이다.}%
이로다.

```
\grrubystyle{rup}\grrubycolor{cyan!70}  
불유가작(不有佳作)에 하신아회(何伸雅懷)리오!  
여시불성(如詩不成){如是 若. 만약. }이면  
벌의금곡주수(罰依金谷酒數){금곡주수는 벌주 석 잔을 말한다. }하리라.  
\end{grrubyparas}
```

4 수정사항

- v0.2: rubycolor 옵션 및 \grrubycolor 명령 추가.
- v0.3: [expos] 옵션 및 \grexpos 명령 추가.
- v0.4: rubystyle lw, rw와 user 추가.
- v0.5: ksruby 지원 추가. \OffStuff deprecated.
- v0.6: pdflatex 옵션 추가.
- v0.7: 옵션 관련 버그 수정.
- v0.8: grrubypara(s) 환경.